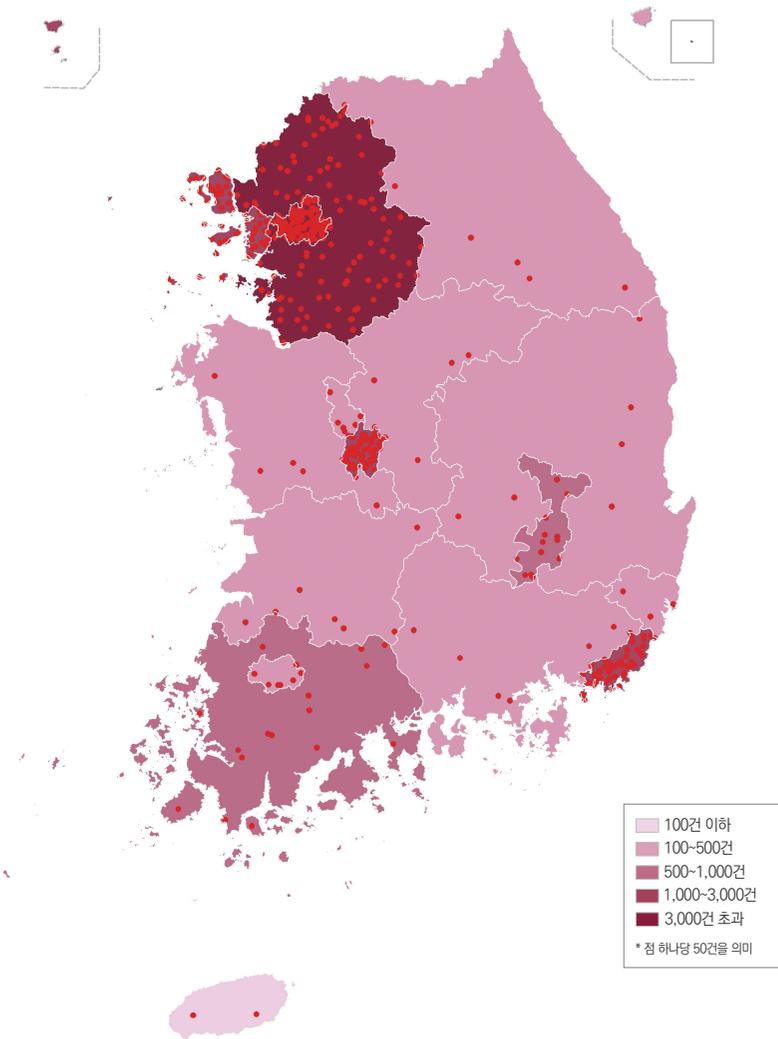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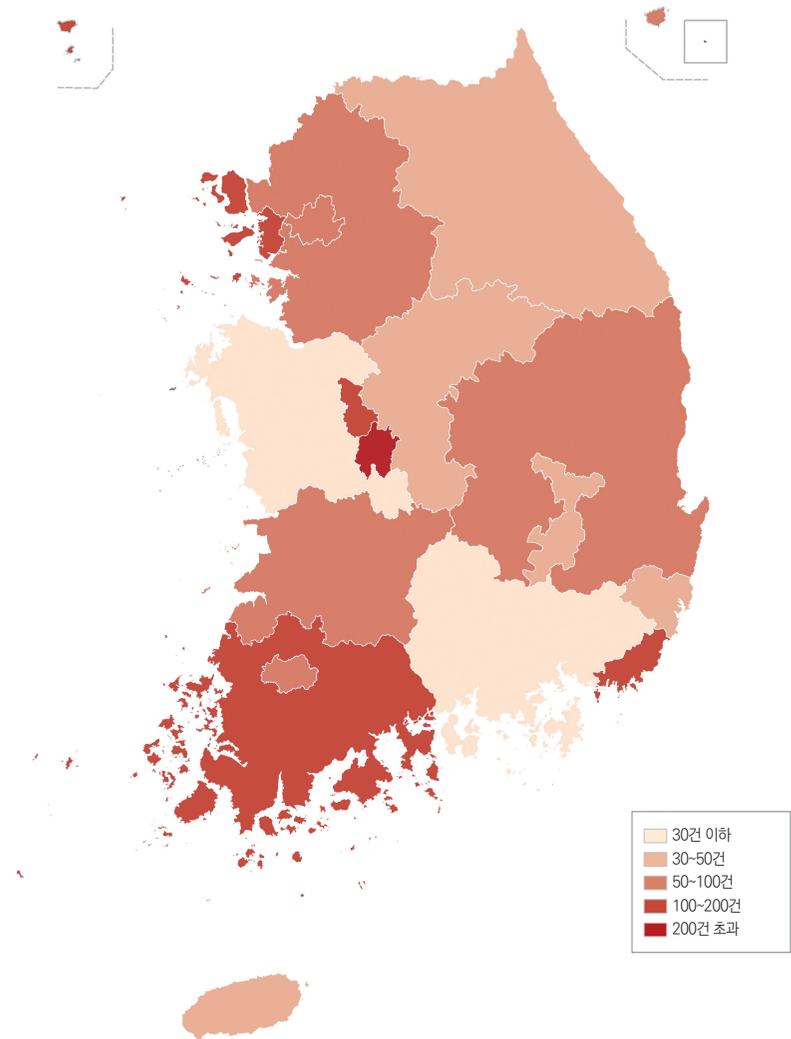
지도로 보는 전세사기피해 발생 현황

-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현황은 서울(6,315), 경기(4,911), 대전(2,982), 인천(2,942) 순으로 수도권에 밀집
- 지역별 전세가구 만가구당 전세사기피해자 수는 대전(277.0), 인천(167.0), 부산(143.6), 전남(140.3) 순으로 나타남
- 주택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(7,275), 오피스텔(4,948), 다가구주택(4,317) 등을 중심으로 발생하며,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비중도 높음
- 연령별로는 20대(25.8%), 30대(48.4%)로 청년층 비중이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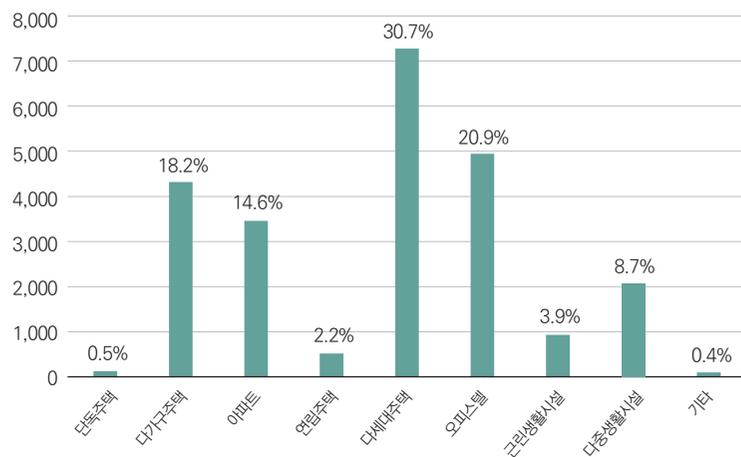
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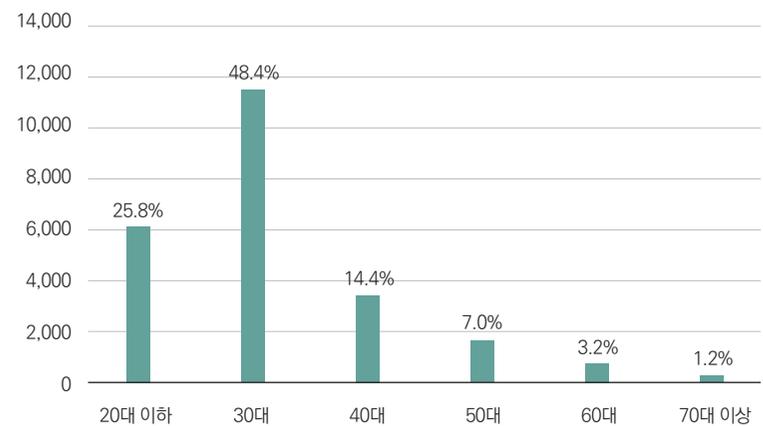
지역별 전세가구 만가구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



주택유형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



연령별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



주1: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2024년 10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가결된 건수를 작성.

주2: 지역별 전세가구 만가구당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건수는 전세가구 대비 피해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결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점유형태별 가구수를 활용하여 산출.

자료: 국토교통부, 2024.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,227건 결정, 10월 25일. 보도자료; 통계청, 2020. 인구총조사 표본(20%).